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전국의 초·중·고·대학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연이어 갖는다. 한 단계 높은 공부를 위해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테고,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방향은 각기 다를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위한 발원과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서상 새로운 한 해를 의미하는 설도 입학과 졸업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만큼 더욱 용기있고 실천적인 다짐이 필요하다. 시작의 다짐은 와 중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의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새겨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졸업과 입학 "이루고자 하는 뜻에 흔들림없이"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에게는 열 가지 마음이 있다. 그 열 가지란 이른 바 용맹스런 마음이니 시작한 사업을 다 이루기 때문이요, 게으르지 않는 마음이니 온갖 선근을 쌓기 때문이며, 용맹하고 견실한 마음이니 일체의 악마를 다 항복 받기 때문이요,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니 일체 더러운 번뇌를 다 없애기 때문이며,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니 도량에 나아가 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화엄경〉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흘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항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예의와 질서가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 공경할 줄 아는 이는 예의와 질서가 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는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예의와 질서를 지니게 되고 남에게 순종하면 의롭고 이로와서 크게 만족해 진다. 〈잡아함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윤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열린마당

조계종 교육제도 진단과 전망

'종단 교육구조 및 제도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교무국장 세미나가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고운사, 금산사, 화엄사, 송광사 등 10개 본사 교무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일 길상사에서 열렸다. 지난 4년간의 승가교육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의 발제,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전통강원의 장점 살려야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

강원의 명칭을 지방승가대학으로 변경한 것은 선교겸수의 맥을 이은 수행의 장이라는 강원의 전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것이다. 또 승가기본교육기관을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강원 등 4곳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인들이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에 다시 들어오는 등 8년이라는 기간을 기본교육이 투자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학력 출가수행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승려교육을 굳이 대학식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전통강원교육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과 대학을 배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각기 특성을 살린 상보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수확보-한글교재 시급

현진스님〈포교원 포교부장〉

현행 승가교육체계는 기초교육(행자교육원), 기본교육(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강원), 전문교육(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어산학교), 재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제도의 대안으로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행자교육원을 2년으로 늘려 연 2회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교육기관 가운데 기초선원은 전문교육에 편입시켜 전문선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행자교육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로 일원화시켜 기초교육 이수자에게 사미(니)계를 주고, 기본교육 4년은 강원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해 강원을 졸업해야만 비구(니)계를 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체계의 개혁과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의 개선, 교재의 한글화, 교수 인력의 안정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행자교육 공통교재 필요

각정스님〈동화사 교무국장〉

최근 들어 행자교육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각 소속사찰에서 행자를 가르치는데 사용할 공통 교재와 지침서 부족, 본사별 행자교육의 주체인 교무국장스님들의 행자교육원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연계등에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본말사 주지연수는 지난해 70% 이상의 참석률을 보였으나 사설사찰 주지스님의 참석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과 경책 등의 뚜렷한 대책마련과 4년간의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비구계 수계산림을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교육원으로 이관해야 하며, 10년 단위의 기성승려의 분한신고도 서류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교육의 의미를 담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준비로 변화시켜야 한다.

토론내용 강원의 계율교육등 의견 다양

'자주 모여서 전법을 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무국장스님의 역할 강화, 습의교육의 강화와 통일, 사미(니) 의제법 시행 등 승가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참석한 교무국장 스님들은 본사에서 강원이 세력화 분리화되면서 행정직 교역직으로서의 교무국장 역할이 점점 퇴색됐다면서 교무국장의 역할 개선을 위해서 승가교육령을 정비하고, 행자교육원 등 교육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습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론교육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습의를 소홀히 다루게 된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행자교육에서부터 본말사까지 습의를 통일시켜 습의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원교육에 계율에 대한 기초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지운스님은 "대부분의 강원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인과 강사간의 교류가 전무하다"면서 "강원의 습의를 율원의 스님들이 담당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승가의 대중생활을 통한 기본의식 연마와 전통강원 형태의 논강 등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승가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단행된 사미(니) 의제법은 대부분의 본사와 강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의제 모델 연구 등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출가자 학력-연령제한 폐지 안된다

제언

밀원스님
前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발표한 교육개혁안 가운데 출가자 학력과 연령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조계종이 고졸학력 이하자를 승려로 양산하면서 승려 자질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모든 승려가 참선만 한다면 사회적인 교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화를 담당하는 승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조계종도 타종교처럼 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사회의 일반적 개념인 성직자로 구분하여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스님을 수도자 겸 성직자로 양성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고졸학력 철폐를 단행하고 승려자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자 제도를 두어 이 과정을 지원하는 행자에게는 고졸학력을 폐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현행 교육법은 출가연령을 15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행자교육 수료자 가운데 기본교육 미입과자 즉 기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40세 이후 출가자로 나타났다.

수도자 지망 행자에게는 출가연령을 폐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 대신 성직자 지망 행자에게는 장차 최고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출가연령 제한은 반드시 해야 한다. 35세까지만 허용해야 한다.

"진짜 부처님 사리입니까"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 1부 차장대우〉

본지 208호(1월 27일자)에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들이 항의전화를 해왔다.

독자들의 항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아직도 사리친견법회냐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형상에 얽매이는 신앙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하나는 석가세존 진신사리를 미얀마에서 이운해 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의 표시였다. 미얀마불교에 대해 정통하다는 한 독자는 미얀마에는 3과의 석가세존 진신사리가 있는데, 어떻게 12과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법회는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치러졌다. 사리친견법회에 이어 진행된 마정수기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수행자가 미래에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부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인데, '자모(慈母)'라고 부르는 사람이 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수행에 진력했던 스님들의 유골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사리신앙은 뿌리깊다. 신라 후기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남기신 법(法) 이상의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팔천송반야경'은 이같은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진정한 여래의 몸이다. 불타세존은 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구들은 결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신체를 부처님의 신체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반야바라밀을 법신의 완성으로 생각해야 하다."

이 말씀을 이번 사리친견법회가 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swjung@buddhapia.com)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
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 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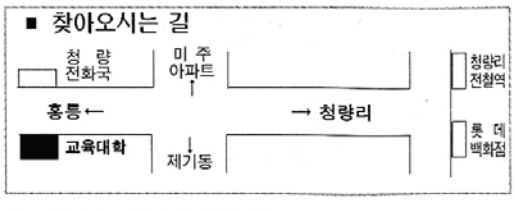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월~목)
▶ 접수일자 : 1999년 1월 27일~3월 7일
▶ 개 강 : 1999년 3월 8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